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9.2.(수) / 총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중국연구센터(+86-21-6090-0395) - 김태일 센터장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수산시장 대응 · 진출 지원 강화 **- 상하이서 수산 분야 간담회 잇따라 개최..시장 변화 대응 및 한중 교역 확대 방안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수산 분야 관계기관 및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수산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수산물 생산 · 유통 · 무역 및 정책 동향에 대한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수산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과 한중 수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5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2026년 중국 수산 생산 · 무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상하이 무역지원센터 양정원 대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진완 본부장, 한국연안협회 최재선 이사, 부산연구원 장하용 책임연구위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수산물 생산 현황과 유통 · 무역 동향을 비롯해 최근 수출입 구조와 관련 정책 변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수산 시장에 대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6일에는 한국송어양식협회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 수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송어양식협회 손희륜 회장을 비롯한 양식업계 관계

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진 등이 참석해 중국 수산시장의 최근 변화와 현지 업계 동향을 살펴봤다. 이어 중국 시장 진출과 교역 과정에서 국내 수산업계가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수요를 청취하고, 한중 수산물 교역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는 올해 4월 수협중앙회의 ‘한국 수산식품 무역 상담회’를 지원하고, 7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후베이 친환경+선박 글로벌파트너링’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중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해양수산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시장과 정책 동향을 국내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중국 수산시장은 국내 수산업계에 중요한 시장인 만큼 현지 정책과 시장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의 현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산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과 교역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MI 중국연구센터 김태일 선임연구위원(86-21-6090-0395, ktizorro@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중국 수산 생산·무역 간담회 단체 사진



<붙임2> KMI-한국 수산업계 간담회 단체 사진

